

치 사

부처님의 가르침인 지혜와 자비의 실천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사회는 생명의 존귀함과 인간 존엄을 등한시하는 물질숭상과 심각한 환경 문제, 그리고 도덕질서의 붕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너와 나의 둘로 나누는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에서 그릇된 가치관이 팽배해지고 세월호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참사로 이어지는가 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깊은 상실과 고립 속에 불안, 분노, 우울, 자살 등 여러 정서적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불교상담개발원과 자비의 전화는 종단 포교단체로서 불교상담이라는 지혜의 그릇으로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사소한 아픔까지도 정성으로 보듬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하나라는 동체대비를 몸소 실천하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기여함은 물론 개인의 심리치유에 헌신하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린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계층에 상관없이 심리상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서구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정신의 치유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불교상담대학원대학교 설립 및 교육관 불사”라는 원력을 세운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는 마음과학의 시대를 능동으로 맞이하는 불교의 미래와도 같은 희망의 불사라 할 것입니다.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추진하는 불교상담대학원대학교 설립 및 교육관 불사에 뜻을 함께하며, 우리 종단을 비롯한 불교계가 이 커다란 원력불사를 격려하고 힘을 보탬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추진위원님들과 불교의 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사부대중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불교상담 발전의

주추가 되어줄 금번 불사가 원만성취하기를 깊은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소중한 정성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2014)년 6월 13일

불교상담대학원대학교설립및교육관불사 추진위원회 증명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